

치유와 치유 집회 어떻게 보아야 할까?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기독교회는 (1)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병으로부터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즉, 의사와 의약품의 사용을 통해), 때로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고쳐 주신다는 것을 인정해 왔으나, 동시에 (2) 주께서 항상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왔다. 즉 항상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이것이 가장 건전하고 바른 태도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성경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기독교와 치유(治癒)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치유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과 연관된 오해들이 우리 주변에 난무(亂舞)하고 있다. 첫째는 치료를 의료기관의 일이지 교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일 또한 없다고 하는 오해(誤解)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그 후의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이신론(理神論)적 입장이나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입장은 하나님을 불신(不信)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기독교를 없애거나 기독교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오해는 정반대로 신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주께서 필요하면 병을 고쳐주시고, 대개는 기도의 응답으로 고쳐주신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을 바라볼 때, 특히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모습을 바라볼 때 깊은 곳에서부터 안타깝고 가련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 그들을 속히 고쳐 달라고 주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참으

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출 15:26 참조).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예도 많지만, 치료해 주지 않으신 예도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또는 '사단의 사자'라고 언급된 (아마도 어떤) 질병을 없애달라는 세 번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고후 12:7-9 참조). 또한 기도하여 여러 사람의 병을 고치라고 하면서도, 디모테에게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명하기도 했던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디모테전서 5:23).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실한 성도들이 전혀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거나, 또 병에 걸렸을 때라도 기도하면 항상 그 병이 치유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참 신자들도 살면서 불신자들과 동일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병에 걸릴 수 있다. 특히 유행병이 돌 때에는 신자들도 그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회는 평소에 이렇듯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성경은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 수많은 성도들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신자들이라도 병에 걸릴 수 있고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물론 주께 죄를 범하여 그 징계로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을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나 죄로 인한 징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병마(病魔)로 인해 질병에 걸렸다는 식의 표현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총신대학교와 합동신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영국 St. Andrews 대학교 신학부에서 조직신학 전공의 석사 학위(M. Phil.)와 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 합신 교수 외에도 연약 교회의 협동 목사로 말씀을 섬기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 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의 기독교세계관 시리즈 책과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신경>, <광장의 신학>, <인간 복제, 그 위험한 도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책과 <개혁신학 탐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등 개혁신학 책을 내었다.

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질병은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과 죽음도 있다(요 11:4 참조). 질병으로 고통 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성도들이 병상(病床)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단순히 어떤 잘못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성경은 병에 걸렸을 때 오직 기도로만 치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약 5:14)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되 (1)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2)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기름은 1세기경에 일종의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다(눅 10:33,34 참조). 그리스도인들은 병에 걸렸을 때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의존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사와도 상담하여 그 조치를 따르되 (1) 하나님을 의존하며 혹시 주께서 의사와 의약품을 통해 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혹시 (2) 이 세상의 의술로는 희망이 없고 주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고쳐주신다면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3) 주께서 그 병을 지라 하시면 그때에도 주님을 의존하여 그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체득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며, 혹시 (4) 주께서 빨리 오라고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하늘복락을 누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한 몸을 입을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네 가지 정황이 모두 다 감사한 것이고, 그 모든 정황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주님을 덜 의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당할 때에 기도할 것이다. 고난의 한 부분으로 병이 생겼을 때에는 교회와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도들은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약 5:16)는 명령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다 고쳐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물

론 주님의 뜻에 따라 병이 낫기도 하고,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살거나(왕하 20:6) 그 이상을 살기도 한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도 필요하면 다시 살려주셨다(왕상 17:17-24; 왕하 4:32-37; 막 5:21-43//눅 8:43-56; 눅 7:11-17; 요 11:1-44; 행 9:40).

특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마 11:5) 그는 참으로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마 4:23) 또한 그의 제자들도 동일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마 10:1-8).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어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다(행 4:10; 8:7 참조). 참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병이 나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 주변의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이렇게 치유를 비롯한 여러 기적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이유는,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시를 확정하는 신임장과 같은 것이면서 특히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다 실현되었을 때의 정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일종의 천국 맛보기와 같은 것이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른 상태는 더 이상 병든 것이나 죽은 것과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음 뿐 아니라 질병도 없다.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 천국 복음과 함께 이런 이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한다. 사도들에게 이러한 사도적 이적(apostolic miracles)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치유 등의 이적 자체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시대뿐 아니라 우리들이 속한 교회 시대에도 주께서 원하시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교회들은 그러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치유 자체에 집착하

거나 그런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건전한 교회는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들은 ‘치유 집회’라는 말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게 그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일은 지금도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는 병 낫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열거나 그런 집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으로 정한 예배시간이나 기도회 시간에 함께 모여 주께 간절히 기도하되 (주께서 필요하시면 우리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실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중심으로 집회를 열어서는 안 되며(참으로 그래야 한다!!!!),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진 것 같은 오해를 살 상황을 연출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자가 환자의 특정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치유가 주어지는 경우 대부분 오해가 발생하게 된다.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오해하기 쉽고, 특히 그와 같이 기도한 사람도 오해하기 쉽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일을 목격하고 그런 권능을 돈으로 사려 하던 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목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고 하면서 매우 강력하게 야단치던 베드로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행 8:15-25). 오늘날에도 그런 권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도 시대에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못 보게 된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아나니아(행 9:12, 17-19)와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주께서는 아나니아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러나 교회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사도들이 안수하여 병을 고쳤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예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한 목사님 중에도 주께서 과거에 그 공동체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스스로 오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 주께서 고쳐주신 것이지 자

신들은 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된 것에 이런 저런 방식으로 자부심과 확신을 드러내는 모습들 말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교회 전체의 모습을 오해하게 만든다. 치유나 치유 사역을 위주로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그런 일이 특정한 사람들 통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무엇인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인정하는, 궁극적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려는 태도” 말이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점에 오해가 많다. 그리하여 은근히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 양 하는 분위기와 언어활동이 유행한다. 은근히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어떤 정황이든지 우리들은 그저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몸이 건전한 상태로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뿐, 주께서 필요하시면 기도에 응답하여 병을 고쳐주실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오직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친히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어떤 정황에서도 특정한 사람이 능력 있는 것처럼 오해할 만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중 주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높이게 된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도와 종교적 천재는 그야말로 질적인 차이 하나이다. 주께서 그렇게 해 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것이다. 우리는 그저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참으로 공허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그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주께서 그런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란다. 부디 우리 주변이 모두 이런 건강한 교회들과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 해당 칼럼은 국민일보 오피니언면 와이드 칼럼 “월드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6/19일자)